



부산국제금융진흥원

보도자료

배포 즉시 보도 가능

담당부서

국제금융실

매니저 권태형 (051-631-0294)

부산국제금융진흥원, 프랑크푸르트 금융센터와 MOU 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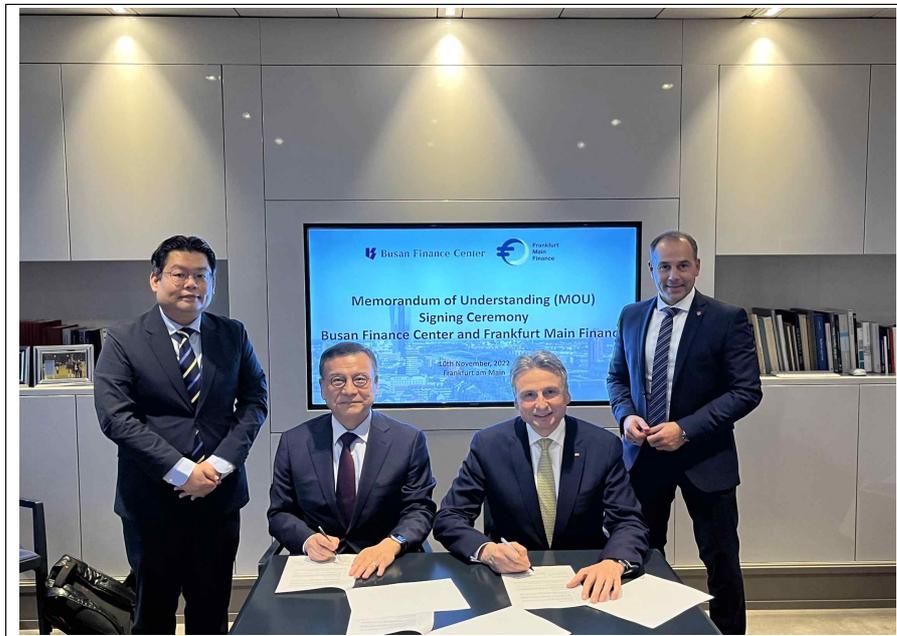
- 독일 금융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금융센터와의 MOU 체결로 인프라, ESG, 핀테크 등의 공동 사업 기회 마련

□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김종화)은 11월 10일(현지시간) 주요 국제금융센터와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센터(Frankfurt Main Finance, FMF)와 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○ 양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ESG(환경, 사회, 기업 지배구조), 핀테크 등 미래 금융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정보 공유와 공동 웨비나 개최 등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“유럽의 대표적인 국제금융도시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국제금융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자 노력 중인 부산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밝히며, “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인프라 투자 기회와 핀테크 및 혁신 분야의 성공사례를 FMF와 공유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□ 게하르트 비쇼이(Gerhard Wiesheu) FMF 회장은 “국제적 금융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의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, ESG, 그리고 핀테크 분야의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기대한다” 고 언급했다.



(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(좌)과 게하르트 비쇼이(Gerhard Wiesheu) FMF 회장(우)이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. / 사진: 부산국제금융진흥원)

- 프랑크푸르트 국제금융센터(Frankfurt Main Finance, FMF) -

FMF는 2008년 설립 이래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유로존의 주요 국제금융센터로 활약한 기관으로, 헤센(Hesse) 주 정부, 메츨러(Metzler) 은행, 독일거래소(Deutsche Börse), 맥킨지&컴퍼니(McKinsey & Company) 등 75개 우수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보유 중이다. 지난 14년간 프랑크푸르트 소재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금융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, 세계국제금융센터연합(WAIFC) 창립을 주도한 도시로서 세계 국제금융센터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.